

# Testimonial from CELLA students

AYA NISHIGUCHI (Japanese) - Power Speaking 6 for 12 weeks

저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막연하게 꿈꿔왔던 그 꿈을,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알고 나서 필사적으로 3 년간 일을 하며 저축, 절약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현지에서 일을 찾아 근무 할 수 있는 여부는 영어 실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영어 실력은 정말 낮았고 일을 찾기는 커녕 갑자기 영어권 어학원에 간다고 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맨투맨수업으로 기초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영어권 유학보다 저렴한 필리핀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필리핀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알아보기 시작했을 당시 필리핀에 많은 어학원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CELLA를 선택한 이유는 질 높은 강사진과 세 부에서 맨투맨 수업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세부에서 3개월 동안에 확실하게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질 높은 수업과 강사에 고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CELLA를 선택해서 정말 좋았다는 것입니다. CELLA의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학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고, 털털하고 이야기하기 쉬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공부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귀국하고 나서 우울했던 저에게 "내가 친구가 될테니가 힘내"라고 말을 걸어 준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좋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CELLA 커리큘럼은 슈퍼바이저가 먼저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는 수업 내용을 제시 해줍니다. 또는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S6 코스를 수강하고 있어, 맨투맨 수업 6시간과 원어민 그룹 수업 1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CELLA의 1시간 수업은 60분으로 길지도 짧지도 않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6시간 맨투맨 수업 동안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균형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2 개월은 학교의 슈퍼바이저가 정해준 내용으로 수업에 들었지만, 마지막 1 개월은 스피킹 실력을 늘리고 싶어 선생님에게 요청하고 스피킹을 강화하면서, 때로는 라이팅이나 리딩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절 가능한 것도 좋았습니다. CELLA는 ESL 과정 외에도 TESOL 과정 등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4주정도 남은 시기에 1시간 TESOL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가한 TESOL 수업은 그룹 레슨의 말하기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들끼리의 토론을 메인으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에 저에게 아주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부에 오기 전 마닐라에서 환승 할 때 제 영어 능력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환승 비행기 탑승 수속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못 알아 듣는 이런 상태로 3 개월 뒤 영어 실력이 향상 될 수 있을지 ... 정말 우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생각이 자극이 되어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공부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은 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자습실에서 그날 수업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남은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대화 되지 않아 고생했었습니다. 회화 도중 필요한 단어를 몰랐을 때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 단어장을 만들고 그날 몰랐었던 단어를 쓰고 매일 어디 갈 때마다 그 단어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은 물론, 슈퍼마켓이나 카페에서도 배운 단어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항상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해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확실히 적은니까요. 처음에는 빨리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은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카페점원과 농담 섞인 간단한 회화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러한 것들은 2개월 전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휴일에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다른 섬에 놀러 가거나 시내 쇼핑 센터에 나가거나 학원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등 세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부에 오기 전에 공부에만 전념하고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님과 많은 학생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뀌었습니다. 세부 유학을 통해 영어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오로지 고민하고 생각만 했었지만 실제로 와 보니, 제가 고민하던 것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꼭 CELLA에서 멋진 경험을 해주세요!